

다테야마(立山)의 여인구제(女人救濟)

- 누노바시칸조에(布橋灌頂會) 재현을 중심으로 -

우정미*
azisai@dreamwiz.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여인구제와 자기성찰 사이 |
| 2. 다테야마신앙과 누노바시칸조에 | 4.1 마을부흥 운동의 명암 |
| 3. 누노바시칸조에 재현 | 4.2 전통과 이벤트 |
| 3.1 재현 경위 | 4.3 전통의 변용 |
| 3.2 재현 형식 | 5. 마치며 |

主題語: 다테야마(TATEYAMA), 누노바시칸조에(NUNOBASHIKANJOE), 여성구제(RELIEF OF WOMAN), 누노바시(NUNOBASHI), 아시쿠라지(ASHIKURAJI), 마을부흥(RENAISSANCE OF VILLAGE), 힐링(HEALING)

1. 들어가며

일본인들은 산에 신이 산다고 믿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이 죽어 가는 타계(他界)로 믿었다. 영산(靈山)은 산 그 자체가 신으로 간주되었고, 그러한 산에는 여성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도야마현(富山縣)에 있는 다테야마(立山)는 일본의 3대 명산 중의 하나이며 다테야마신앙의 터전이기도 했다. 산중지옥으로 대표되는 다테야마는 지옥신앙만이 아니라, 아미타신앙, 관음신앙, 지장신앙, 우바손(姥尊)신앙 등이 섞여 있다.

다테야마신앙 중에 아시쿠라지(芦峯寺)¹⁾ 촌락 일대를 무대로 하여 여인구제(女人救濟)의 의례로서 누노바시칸조에(布橋灌頂會)가 있었다. 에도(江戸)시대는 여성부정관(不淨觀)과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는 불교적 교리가 한층 심화되던 시기였다. 사후 극락왕생을 바라는 여성들의 신앙적인 염원에 편성하여 아시쿠라지의 여성구제 의식인 누노바시칸조에는 에도

* 경상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전임연구원

1) 절이름에서 유래한 지명

후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메이지(明治) 정부의 신불분리령(神仏分離令)에 의해 누노바시칸조에 의례를 비롯하여 다테야마신앙 그 자체가 쇠퇴해 버린다.

1996년 도야마현의 국민문화제에서²⁾ 누노바시칸조에는 130년 만에 재현되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 ‘현대인의 마음 치유’ 행사로서 현재 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본고는 재현된 누노바시칸조를 통하여 전통계승과 현실, 전통의 변용에 대해서 재고해 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역사성에 기인하여 재창조한 이벤트나 축제 등을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본고를 통하여 가치관이 달라진 시대에 전통이란 현대인에게 있어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계승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로서는 재현된 누노바시칸조에 그 자체를 두고 한 연구라기 보다는 재현을 계기로 역사적인 여성구제 의식으로서의 누노바시칸조에, 혈분경신앙(血盆經信仰)과 다테야마, 다테야마 만다라(立山曼陀羅), 아시쿠라지 슈토(衆徒)의 포교활동 등이 있다. 재현된 누노바시칸조를 언급한 것은 노무라 후미코(野村文子)의 두 개의 논문이다.³⁾ 둘 다 여성학 시각으로 1996년, 2005년에 재현된 누노바시칸조를 바라보면서 누노바시칸조에 대하여 저자가 가졌던 의문에 답하는 형식인데 그 의문의 대부분은 누노바시칸조에 역사에 관한 것이다.

본고 수행에 있어서 도야마현의 지역신문인 『기타니혼신문』(北日本新聞)의 기사(1991.6.12~2014.9.30)를 기본 자료로 하고, 제5회 누노바시칸조에 참가한 필자의 체험⁴⁾과 다테야마 박물관 학예사와 진언종(真言宗) 풍산파(豊山派) 보옥원(宝玉院)의 주지와의 인터뷰조사⁵⁾도 참고를 하였다. 『기타니혼신문』은 1884년에 창간되었고, 도야마현을 대표하는 지역신문이다. 누노바시칸조에 행사의 주최자이기도 하여 관련 기사가 많기 때문에 주된 자료로 삼았다.⁶⁾ 1991.6.12~2014.9.30이란 기간은 도야마현에서 제11회 국민문화제 개최지 내정서를 받은 기사부터 제5회 누노바시칸조에 행사에 대한 기사를 포함하는 날짜이다.

2) 국민문화제는 지역문화발전을 겨냥하면서 아마추어들에게 발표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1986년에 시작되었다. 제1회는 文化庁과 東京都가 공동주최하여 東京에서 열렸으며, 1996년 11회가 도야현에서 개최하였다. 2014년은 29회로 秋田県에서 개최되었다.

3) 野村文子(1997)『立山信仰と女人救済』, (2006)『生と死：再生儀礼』

4) 필자는 2014년 6월 布橋灌頂會 女人衆 공모에 지원하여, 2014년 9월 21일 제5회 布橋灌頂會 행사에 참가하였다.

5) 2014.11.18 立山博物館 세미나실, 2014.11.25 埼玉県所沢市三ヶ島 소재의 宝玉院

6) 그 외에도 『中日新聞』, 『富山新聞』 등이 있지만 기사는 많지 않을뿐더러 있는 기사도 『北日本新聞』의 내용과 차이가 없었다.

2. 다테야마신앙과 누노바시칸조에

다테야마는 나라(奈良)시대에 이미 신산(神山)으로 숭경을 받았고, 헤이안(平安)시대 초기 슈겐승(修驗僧)에 의해 열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돈독한 신앙을 모은 산악종교의 영산이다. 다테야마신앙의 가장 큰 특색은 지옥신앙이다. 옛날 다테야마에는 화산활동의 여세가 남아 연기가 피어오르고, 굉음과 악취를 풍기는 용암이 흘러넘치는 대규모적인 계곡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무서운 지옥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라 여겨, 지옥곡(地獄谷)이라 이름 지었다. 거기는 일본 전국의 사자(死者)의 망령이 떨어지는 곳이라 믿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⁷⁾

다테야마 개산자(開山者)인 자흥(慈興)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이와쿠라지(岩峯寺)와 아시쿠라지(芦峯寺)는 가마쿠라(鎌倉)시대 초기에 이미 다테야마신앙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양 절은 종교적 촌락을 형성하였는데 아시쿠라지에는 강력한 자치조직인 일산화(一山會)가 있어 장관(長官), 원주(院主), 별당(別當), 중노(中老), 목대(目代) 등의 위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마을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였다.⁸⁾ 아시쿠라 이와쿠라 양 절의 슈토(衆徒)⁹⁾들은 포교활동을 할 때 다테야마 만다라(立山曼荼羅)¹⁰⁾를 적극 활용 했다. 만다라 화면에 있는 다테야마 개산 연기(緣起), 다테야마 지옥, 다테야마 정토, 다테야마 선정 등산안내, 누노바시칸조에 등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 부분만을 특유의 화술로 손짓발짓 섞어서 얘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다테야마 선정을 권유하고, 여성들에게는 가을 피안(彼岸) 중일(中日) 아시쿠라지에서 행하는 누노바시칸조에에 참가와 혈분경 공양을 권유했다. 방문해 오면 자신의 숙박(宿坊)에서 숙박하기를 권하고, 길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다테야마 산용(山容)과 다테야마 신앙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테야마 만다라를 이용해 시각적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난해한 교리에 기초한 교의보다는 이러한 그림 설명에 의한 포교가 꽤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¹¹⁾

누노바시칸조에는 아시쿠라지촌에 있는 염마당(閻魔堂)과 누노바시(布橋)¹²⁾, 우바당(姥堂)

7) 広瀬誠·清水巖(1995), p.44

8) 広瀬誠·清水巖(1995) p.50, p.61

9) 半僧半俗의 종교인을 立山에서는 衆徒라고 한다. 芦峯寺衆徒는 33軒의 僧職과 5軒의 神職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의 가옥을 坊라고 하는데 자체가 하나의 寺院이면서 숙박소였다. 衆徒의 포교지를 檀那場라고 한다.

10) 立山曼荼羅는 흔히 속칭이고 정식이름은 御繪伝이다. 立山研究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草野寛正가 그의 논문「立山姥堂の行事考」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1) 福江充(2005), p.9

12) 원래의 의미는 다리 위에 까는 白布를 의미했는데 江戸 후기에는 다리 자체를 布橋라고 했다.

을 주된 무대로 하여 여성의 정도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 기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에도후기에 그 체제가 갖추어졌으며 메이지 정부의 신불분리령이 있을 때까지 행해졌다.¹³⁾

누노바시칸조에 진행 형식을 고기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¹⁴⁾ 무대가 되는 염마당과 누노바시, 우바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염마당 앞에서 누노바시를 거쳐 우바당까지 3열의 백포를 깐다. 여기에 사용되는 백포는 360필이다. 누노바시 위의 양측 난간에는 6개의 깃발과 조화로 만든 66개의 벚꽃, 천 개의 양초를 세워 장식한다. 염마당 앞의 다리에서 우바당까지는 380개의 만등과 소등을 밝힌다. 아자리(阿闍梨)와 원주(院主)는 노닌슈를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는 인도사(引導師)와 저승에서 맞이하는 내영사(來迎師) 역을 맡는다. 참가자는 염마당에 들어간다. 당내에서 인도사가 참회계문을 읽는 사이에 참가자는 각자의 죄를 참회한다. 다음으로 인도사가 삼매야계문(三昧耶戒文)을 읽고, 대일여래를 칭송하는 시문, 법화경, 진언(주문)을 순서대로 읽는다. 염마당에서의 법요가 끝나면 참가자는 인도사를 따라 쇼묘(聲明)와 악기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백포 위를 걸어 누노바시로 향한다. 누노바시 위에서 행도강(行道講)이 행해진다. 행도강이 끝나면 참가자는 우바당으로 들어간다. 당내에서는 천태계 사개법요(四箇法要)¹⁵⁾를 행한다. 내영사는 참가자들에게 혈맥을 수여하고, 마지막 법회를 한다고 적고 있다.

누노바시칸조에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고기록에는 10몬메(匁)가 필요했다고 적고 있고,¹⁶⁾ 전승기록에는 우바당으로 들어가는 순번에 따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두 사람은 75료(兩), 두 번째로 들어가는 두 사람은 55료, 세 번째로 들어가는 두 사람은 35료로 금액이 달랐다고 한다.¹⁷⁾ 어느 쪽이든 적지 않은 참가비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 행사는 아시쿠라지 촌락에 있어서 아시쿠라지 33개의 숙박가가 모두 참가하는 연중 대행사였다고 한다.¹⁸⁾

13) 福江充(2006), p.97

14) 廣瀬誠・高瀬保共編(1992)IV, pp.11-14 천보13년(1842)「諸堂勤方等年中行事外數件」

15) 唄, 散華, 梵音, 錫杖라는 四曲聲明을 축으로 이루어진 법요

16) 廣瀬誠・高瀬保共編(1990), p.46

17) 佐伯幸長(1973), p.367

18) 廣瀬誠・高瀬保共編(1992)IV, pp.144-146

3. 누노바시칸조에 재현

3.1 재현 경위

아시쿠라지 내의 불교 관련 종교시설은 메이지 정부의 신불분리령에 의해 전부 철폐되었다. 1970년 문화청이 주도하여 현대인에게 선인(先人)의 족적을 회고하고 대자연에 친숙해지고, 인간적인 숨결을 되살리자는 목적으로 ‘풍토기의 언덕’(風土記の丘)을 지정하였다. 도야마현에서는 ‘다테야마 산악신앙의 근거지’인 아시쿠라지 일대가 지정되었다. 문화청, 도야마현, 다테야마마치(立山町), 아시쿠라지, 오야마신사(雄山神社)가 일체가 되어 풍토기 언덕을 조성하였다.¹⁹⁾ 이때 염마당과 누노바시는 개건되었지만 우바당은 기단만 정비되고 재건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바당의 기단 옆에 박물관 건물인 요망관(遙望館)에서 옛날 우바당의 의식을 체험한다.

풍토기 언덕 지정된 이후 차츰 최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건물관리 위주로 가는 것을 염려하고 있을 즈음에 11회 국민문화제 개최지로 도야마현이 내정된다. 국민문화제 실시 사업 중에 재발견한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창조를 지향하여 기획한 사업이 ‘다테야마 페스티벌’이었다. ‘다테야마 페스티벌’은 누노바시칸조에의 현대적 복원과 다테야마 슈겐도(修験道)의 체험등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²⁰⁾

국민문화제 이후 지속적인 개최 희망과는 달리 바로 다음 회가 진행되지 못 했다. 2003년 초제(町制) 50주년을 기념하여 다테야마마치 관광협회총회에서 누노바시칸조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니즈조사를 실시하였다.²¹⁾ 2005년 다테야마마치와 기타니혼신문사(北日本新聞社)가 공동주최한 제1회 누노바시칸조에 재현 행사가 열렸고, 2014년 5회를 맞이했다. 처음에는 불규칙적이었는데 2010년 11월에 실행위원회에서 3년에 1회로 정례화시켰다.²²⁾

3.2 재현 형식

제11회 도야마현 국민문화제에서의 누노바시칸조에 재현형식은 아시쿠라지에 전해져 오는 고문서에 의거하였다. 누노바시 행렬도가 가장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는 「諸堂勤方等年中行事

19) 佐伯幸長(1973), pp.618-619

20) 第11回国民文化祭とやま'96実行委員会編(1997)公式記録, p.72

21) 『北日本新聞』2003년5월3일 24면

22) 1996년 국민문화제, 2005년 제1회, 2006년 제2회, 2009년 제3회, 2011년 제4회, 2014년 제5회.

外數件」(1842년 天保13)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에도시대 ‘누노바시칸조예’에 관한 기록 중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취합했다. 그 위에 이벤트성을 가미하고, 오감(五感)에 호소하는 부분은 약간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재현 형식을 완성시켰다.²³⁾

좀 더 구체적으로 재현형식을 살펴보면 누노바시칸조예에 참가하는 노닌슈(女人衆)²⁴⁾와 승려를 비롯한 출연자들은 일반공모를 하였고, 불교음악인 쇼묘(声明)와 아악(雅樂)연주는 전문인들이 담당했다. 시로쇼조쿠(白装束)를 입은 노닌슈가 염마당에서 진언계 참회법회를 하고, 그 이후 눈가리개를 하고 누노바시를 건너, 요망관(우마당 대신으로 사용)에 들어가 천태계 사개법요(四箇法要)를 끝내고 다시 다리를 건너 돌아온다. 형식면에서는 2장에서 기술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테야마마치와 기타니혼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누노바시칸조예의 재현 형식 또한 제11회 국민문화제 때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노닌슈의 모집 숫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전체적인 행사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4. 여인구제와 자기성찰의 사이

4.1 마을부흥 운동의 명암

아시쿠라지는 도야마현 나카니이가와군(中新川郡) 다테야마마치(立山町)에 속하며, 다테야마마치는 현의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가늘고 길게 이어져 나가노현(長野県)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²⁵⁾ 다테야마 기슭에 있는 아시쿠라지는 전통적인 산촌으로 농사는 적고, 에도시대에는 산의 산물이나 슈토들의 포교활동에서 배포한 물건 대금, 선정(禪定)과 누노바시칸조예에 참가한 신자들을 위해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얻는 것이 마을 경제의 근간이었다. 메이지 정부의 신불분리령으로 누노바시칸조예는 폐지되고, 선정은 근대 산악등산의 형태로 바뀌었다. 아시쿠라지를 형성하고 있던 숙박가도 자연 쇠락하여 마을을 떠났다.

과거에 매몰되어 있던 누노바시칸조예가 1996년 재현을 위한 기획 단계부터 마을부흥을 고려하고 있었다. 국민문화제가 끝난 이후 상상외로 누노바시칸조예 행사에 대한 반향이 컸다. 심포지움과 학회가 열리고, 누노바시칸조예 재현행사 참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

23) 第11回国民文化祭とやま'96実行委員会編(1997) 報告書, p.25

24) 白装束을 입고 의식에 참가한 여성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白装束은 수의를 말한다.

25) 立山町編(1977), p.1

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강한 요구에 힘입어 다테야마마치가 주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다음 개최는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2003년부터 니즈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다테야마마치와 기타니혼신문사가 공동주최하여 제1회 누노바시칸조제가 열렸고, 1회의 문제점과 시정할 부분을 보완하여 2006년 제2회는 1박2일 일정으로 다테야마 만다라의 그림설명회, 다테야마 선정(禪定) 요리체험, 불교 음악감상 등으로 구성하여 그 성과가 현 외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²⁶⁾

또한 누노바시칸조에는 지역교육영상자료 쿡쿨에서 수상(2006.12), 프로젝트미래유산으로 지정(2012.2)되고, 산토리 지역문화상²⁷⁾을 수상(2014)하여 지역민에게 자신의 고장에 대한 강한 긍지를 심어주었다.

다테야마마치는 재정상의 이유로 누노바시칸조에 재현행사를 4년에 한 번 개최하자고 했다. 이에 대하여 아시쿠라지 총대이고, 누노바시칸조에 실행위원회장인 사에키 노부하루(佐伯信春) 씨는 지원만 해 준다면 매년 개최하고 싶다고 적극 요구하지만²⁸⁾ 2010년 11월 실행위원회에서 3년마다 열기로 결정되었다.²⁹⁾ 누노바시칸조에 행사의 주최자가 다테야마마치와 기타니혼신문사이기 때문에 행사가 있는 해라고 해도 아시쿠라지 촌민은 자원봉사로 참여한다. 아시쿠라지가 주체가 되는 것은 아시쿠라지 부인회가 담당하는 지역특산물과 지역전통음식을 판매하는 ‘굿초 마즈리’(ごっつお祭り)이다. 3년 한번 열리는 행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시쿠라지촌 주최로 일상복 차림으로 다리건너기 체험, 지역특산물 소개, 불교음악회, 다테야마 만다라 그림설명회 등을 했지만 지속적이지 못 하고 1회에 그쳤다.³⁰⁾

아시쿠라지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2012년 3월 ‘다테야마아시쿠라 마을만들기 협의회’(立山芦峯ふるさとづくり協議会)를 설립하여 아시쿠라지 일대를 에코뮤지엄으로 규정하고, 지역자원을 살린 그린투어리즘을 목표로 했다. 협의회는 ‘누노바시 체험’ ‘다테야마 만다라 설명회’ ‘다테야마 등산’ ‘향토요리 시식’ 등의 행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시쿠라지를 거점으로 하여 도시농촌 교류확대도 꾀하고 있다.³¹⁾

그러나 2010년 초등학교 폐교, 2011년 보육원이 문을 닫았다. 마을의 젊은 사람이 줄어든다

26) 『北日本新聞』2006년5월18일 31면, 2006년9월18일 37면

27) ‘프로젝트미래유산’은 100년 후 아이들에게 지역문화와 자연을 남기려고 일본유네스코협회연맹이 2009년부터 인정을 시작했다. 산토리지역문화상은 산토리문화재단에서 1976년부터 지역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게 포상하는 상

28) 『北日本新聞』2007년3월3일 34면

29) 『北日本新聞』2007년8월4일 36면의 기사에 의하면 立山町에서는 재정상의 이유로 4년마다를 주장한 것에 대하여 실행위원회에서는 3년마다를 제안하면서 立山町와 현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당시 결정되지 못 하고, 2010년에 3년에 1회로 정례화된다.

30) 『北日本新聞』2008년9월29일 32면

31) 『北日本新聞』2012년3월2일 25면, 2012년9월12일 21면

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은 점점 고령화되고, 마을의 여론은 양분되어 마을 사업에 있어서도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³²⁾

산토리 지역문화상을 대표로 수상한 후 사에키 노부하루 씨는 ‘다테야마쿠로베(立山黒部) 알펜루트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고, 아시쿠라지촌 위에는 스키장이 조성되어 있다. 다테야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아시쿠라지는 지나가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 누노바시칸조에 대표되는 마을의 풍정(風情)을 지키면서 어떻게 매력을 전할 것인가가 활성화의 관건이 된다’고 했다.³³⁾ 2005년 1회 개최된 이후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누노바시칸조에 재현행사로 인해 아시쿠라지 촌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크지 않음을 알게 해 주는 대목이다.

4.2 전통과 이벤트

필자가 참가한 5회 누노바시칸조에 재현행사를 조금 설명을 하면 행사 3시간 전에 노인슈로 참가하는 여성들은 대기 장소에 모여서 시로쇼조쿠로 걸어입었다. 수의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옷깃이 왼쪽 깃 위로 가게 입었다. 오비는 청(靑) 녹(綠) 적(赤) 등의 색깔있는 것으로 허리 뒤에서 리본형식으로 묶어 길게 늘어뜨렸다. 행사시간에 맞춰 시로쇼조쿠 차림의 여성들이 염마당에 들어가면 진언종의 승려가 참회법회를 이끌어 갔다. 참회계문을 외우기 전에 당부처럼 진언종 형식의 참회계문을 읽지만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며,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라 참회, 반성을 하면 된다고 일단 조건을 달아두고 시작했다. 염마당 법요가 끝나면 밖으로 나와서 눈가리개를 하고, 샷갓을 쓰고 인도사를 따라 다리 건널 준비를 했다. 다리를 건널 때는 3열이 앞과 옆을 서로 맞추면서 건너라고 하고, 행렬 앞에서 승려가 뿌리는 색지³⁴⁾는 좁지 말라는 것은 대기실에 있을 때 미리 주의 받았다. 쇼묘와 아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인도사를 따라 다리로 나아갔다. 다리 중앙에서 인도사와 내영사의 수법(修法)이 끝나면 노인슈는 내영사를 따라 요망관으로 들어갔다. 눈가리개를 한 상태에서 불교음악이 울리는 가운데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했다. 염마당에서처럼 여기서도 승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겠지만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 같이 암송하자고 말한 후에 십염불(十念仏)을 시작했다. 염불이 끝나고 눈가리개를 풀면 빛을 가렸던 요망관의 셔터가 올라가면서 넓은 홀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옛날의 의미로 보면 다리를 건너오면서 지은 죄와 속세의

32) 立山博物館 학예사 인터뷰 참고

33) 『北日本新聞』2014년7월14일 7면

34) 오색 종이로 만든 연꽃잎. 법회 중에 声明에 맞추어서 뿌리는 것으로 散華라고 한다. 散華는 声明을 지칭하기도 한다.

때를 다 씻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 해당한다. 곧이어 천태종 스님으로부터 받는 관정은 부처님과 결연을 의미하고, 사후 극락왕생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호부(護符) 혈맥(血脈) 혈분경을 받았다고 한다. 눈앞에 높이 솟아 있는 다테야마를 보면서 각자가 염원하는 바를 두 손 모아 빌고 요망관을 나와(이때는 눈가리개를 하지 않고, 삿갓만 쓴다) 건너 올 때처럼 대열을 만들어 염마당 쪽으로 되돌아 갔다. 염마당 앞에서 노닌슈와 진언종, 천태종 스님들과의 인사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재현에서도 인도사와 내영사는 현직 승려가 맡아서 노닌슈를 이끈다. 염마당이나 요망관에서 범회를 집전하기 전에 거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라 해도 무방함을 강조하지만 염마당과 요망관의 의식은 분명 불교의식이었다. 이 부분은 누노바시칸조에 홍보를 할 때에도 설명은 하되 내세워 강조하지 않는다. 마을행사로 재현하는데 있어 특정 종교의식을 강조할 수 없는 행정적인 입장 때문일 것이다.³⁵⁾

눈가리개를 하는 것과 요망관에서 셔터가 올라가는(옛날에는 우바당의 사방 문이 일제히 열리는) 연출은 고기록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기록³⁶⁾에서 채용한 것이다. 다테야마 만다라 연구³⁷⁾에 의하면 다테야마 만다라 속에는 누노바시칸조에 참가한 여성들은 눈가리개를 하지 않았으며, 중에는 시로쇼조쿠를 입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다고 했다. 단나바(檀那場)에 나가 포교할 때 직접적으로 쓰이는 중요한 도구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옛날에는 눈가리개도 하지 않았고, 여성이 주된 주인공이긴 하지만 남성도 참가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현대인의 마음 치유’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남성은 참여할 수 없다. 다리를 건널 때 대열을 맞춰야 하고, 보기 안 좋으니까 떨어진 색지는 줍지 말라는 것, 시로쇼조쿠의 오비에 색깔을 넣어 밋밋한 흰색에 포인트를 준 것은 결국 누노바시칸조에 보러 온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출된 것이고 참가비를 내고 노닌슈로 참가한 여성들은 누노바시칸조에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4.3 전통의 변용

전통을 현대에 되살리고자 할 때는 그 의미를 찾는다. 현대인에게도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 의미 부여를 한다. 누노바시칸조이라는 범회의 저변에는 여성이 영산에 들어

35) 布橋灌頂會 재현에서 引導師 역을 맡은 宝玉院의 주지 스님의 말에 의하면 행정적인 입장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가장 예민하다고 했다.

36) 佐伯幸長(1973), p.365, 草野寛正(1936), p.31

37) 福江充(2006), p.100

갈 수 없는 여인금제와 출산과 생리로 일생동안 흘린 피가 세상을 더럽힌 죄로 죽으면 반드시 피의 연못 지옥에 떨어진다는 여성부정관과 여성 부성불(不成佛) 등 현대적 용어로 ‘여성차별적’인 요소가 깔려 있다. 에도시대 여성들이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을 아시쿠라지 슈토들이 교묘하게 이용하여 다테야마 산중에는 피의 연못이 있고, 거기에 빠진 여성들을 구제해주는 법회가 있으니 꼭 와서 참석하라고 권했다. 그러한 의식을 재현하고자 할 때 여성차별적인 요소를 강조해서는 현대인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기 어렵다. 130년간이나 폐지되었다가 복원된 의식은 현대인과 부합되어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96년 도야마현 국민문화제 때 누노바시칸조에 재현에 적극 참여했던 전 다테야마 박물관장 요네하라 히로시(米原寛)씨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에도시대의 의식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인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즉 에도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생각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재해, 흠어려진 마음, 병, 죽음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앎으로서 현대의 생(生), 노(老), 사(死)라는 테마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국민문화제에서 재현하는 의도이다’라고 했다.³⁸⁾ 그의 말 속에는 여성은 없다. 에도시대의 사람과 현대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노년슈로서 누노바시칸조를 체험한 여성들의 감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6년 도야마현 국민문화제 참가자의 감상으로 ‘장엄한 분위기에 마음이 씻어지는 듯했다’ ‘이상한 체험이었다. 내 자신과 마주하는 느낌이 들었다’³⁹⁾ 2005년 참가자의 감상으로 ‘나 자신을 다시 바라 볼 수가 있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기분이 개운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⁴⁰⁾ 2009년 참가자의 감상으로 ‘살아있다는 실감과 감사의 기분이 저절로 들었다’ ‘이상하게도 기분이 상쾌해 지며 내 자신과 마주하는 기분이었다’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⁴¹⁾ 2014년 참가자의 감상으로 ‘마음의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빌었다’ ‘가족의 건강을 빌었다’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⁴²⁾

이상과 같이 누노바시칸조를 체험한 여성들의 감상을 통하여 그 공통점을 대략 ‘자기성찰’과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힐링’으로 집약할 수 있다. 노년슈로 참가한 여성들은 염마당 앞에서 눈가리개를 하고, 다리를 건너고 어두운 요망관(옛날의 우바당)에 들어가 십염불이 끝날 때까지 눈가리개를 한 채로 있다. 눈을 가리면 밖으로부터의 정보가 차단되고, 감각이

38) 野村文子(2006), p.172

39) 『北日本新聞』1996년9월30일 1면

40) 『北日本新聞』2005년9월19일 28면

41) 『北日本新聞』2009년9월28일 28면

42) 필자가 참가하여 주변에 직접 물어 얻은 답이며, 실행위원회에서 제작하여 노년슈로 참가한 여성들에게 보내 온 영상물 속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참가자는 20대의 젊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가 중년의 여성들이었다.

예민해지면서 평소 보이지 않았던(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라면 한 번쯤은 자신과 주변을 돌아 볼 것이고, 현재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노바시칸조에 재현형식을 빌어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는가.

옛날의 여성들은 생전에 부정(不淨)을 씻어버린 재탄생과 사후 극락왕생을 원하면서도, 어찌면 살아있는 동안 마음의 편안함을 더 회구했을 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는 현대 여성들이 느꼈던 자기성찰과 힐링은 시공을 초월한 ‘마음의 치유’라 할 수 있겠다. 이 점은 현대에 살릴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 창출에 시로쇼조쿠, 눈가리개, 염마당, 누노바시, 요망관이 그 가치를 극대화 시켜주는 무대장치가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주최측에서 가능한 한 종교적인 특성을 강조하지 않듯이, 재현 형식은 불교적이지만 내용은 종교색과 떨어져 있다.

5. 마치며

이상에서 재현된 누노바시칸조를 통하여 전통계승과 현실, 전통의 변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문화의 복원이나 재현에 있어서 정말 계승되어야 하는 것에는 경제성보다 그 의미를 더 크게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통문화 재현은 경제성과 관련이 있다. 아시쿠라지 촌락에서도 마을부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전통계승이란 이름으로 재현된 누노바시칸조에는 이벤트화, 관광 상품화되어 형식중심의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회를 거듭할수록 고착화되어 가고 있었다. 재현되면서 현대인에게 어필되어야 했던 누노바시칸조에는 옛날 여인왕생을 위한 법회에서 현대인의 마음 치유를 위한 이벤트 행사로, 의식(儀式) 그 자체가 재탄생되었음을 보았다.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인간사가 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옛날의 것과 오늘의 것이 똑 같을 수 없다. 전통문화유산 속에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변용해야 하는 문제는 비단 일본에서만만의 문제는 아니다.

【参考文献】

北日本新聞社『北日本新聞』(1991.6.12~2014.9.30)

佐伯幸長(1973)『立山信仰の源流と変遷』立山神道本院, p.365, p.367, pp.618-619

- 立山町編(1977)『立山町史』立山町, p.1
第11回国民文化祭とやま'96実行委員会編(1997)『第11回国民文化祭とやま'96 立山フェスティバル報告書』
第11回国民文化祭とやま'96実行委員会, p.25
第11回国民文化祭とやま'96実行委員会編(1997)『第11回国民文化祭とやま'96 公式記録』第11回国民文化祭
とやま'96実行委員会, p.72
廣瀬誠・高瀬保共編(1990)『越中立山古記録ⅠⅡ』越中資料集成別巻2 桂書房, I p.46
廣瀬誠・高瀬保共編(1992)『越中立山古記録ⅢⅣ』越中資料集成別巻2 桂書房, IV pp.11-14, pp.144-146
広瀬誠・清水巖(1995)『立山と信仰』佼成出版社, p.44, p.50, p.61
福江充(2005)『立山曼荼羅』法蔵館, p.9
福江充(2006)『立山信仰と布橋大灌頂会』桂書房, p.97, p.100
草野寛正(1936)『立山姥堂の行事考』高志人 一卷一号』p.31
野村文子(1997)『立山信仰と女人救済』『川村短期大学研究紀要』通巻17号
野村文子(2006)『生と死：再生儀礼』『川村学院女子大学研究紀要』第17巻二号, p.172

논문투고일 : 2014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115년 0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1월 19일

〈要旨〉

다테야마(立山)의 여인구제(女人救濟)

- 누노바시칸조에(布橋灌頂會) 재현을 중심으로 -

누노바시칸조에는 에도시대에 행해졌던 불교의식이다. 다테야마마치 아시쿠라지에 있는 염마당과 누노바시, 우바당을 무대로 하얀 수의를 입은 여성들이 먼저 염마당에서 참회의 법회를 하고 나와, 눈가리개를 하고 누노바시를 건너면 죄업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토의 상징인 우바당에서 혈분경과 혈맥을 받으면 새로 태어나는 것이 되고, 사후 정토에 간다는 여인구제(왕생)의식이다. 메이지 정부의 신불분리정책으로 폐지되었다가 1996년 130년만에 재현된 누노바시칸조에는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행해져 현재 5회를 맞이하고 있다.

재현된 누노바시칸조에는 다테야마마치와 기타니혼신문사가 공동주최하면서부터 마을부흥 성격이 강해졌다. 회를 거듭 할수록 널리 알려져 각종 상을 수상하여 마을의 긍지를 높혀주었지만 3년에 한 번 개최와 주최자가 아닌 아시쿠라지 주민에게 있어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았다. 전통이 현대인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변용은 불가피한데 이벤트성과 관광상품으로서의 이미지가 강조되어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치우치고 있었다. 내용상에서는 역사상의 누노바시칸조에 의식에서 나타나는 여인구제, 여인불성불, 여인구제(왕생)는 현대인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 배제하고 성의 구별없이 현대인의 ‘마음의 치유’ 포장되어 있다.

아시쿠라지의 누노바시칸조에 재현을 통하여 마을부흥의 명암과 전통은 형식으로 남고, 내용은 현대인의 관심에 맞게 변용되어 의식 그 자체가 재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치관이 달라진 시대에 전통이란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계승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Women relief of Dateyama

Nunobasikanjoe is Buddhist ceremony held in the age of Edo. On the stage of Yeommadang, Nunobasi, Ubadang located in Dateyamamachi Asicuraji, women wearing white shroud first hold Buddhist mass of compunction in Yeommadang and come out and they wear eye patch to cross Nunobasi in order to purge their crime. If they are given Hyulbunkung and Hyulmaek in Ubadang, the symbol of pure land, they are newly born again. This is the ceremony of relief of woman(Wangsaeng) to go to pure land after death. After being abolished by Buddhism separation policy of Meiji Government and reproduced in 1996 after 130 years, Nunobasikanjoe has been regularly performed since 2005, completing the 5th anniversary at present.

As the reproduced Nunobasikanjoe is jointly held by Dateyamamachi and North Japan Newspaper, it shows strong character of renaissance of village. Although it elevated the pride of village as it is widely known, winning diverse prizes, the actual profit is not so large to the inhabitants of Asicuraji who are not the organizers, because it is held in every 3 years. Tradition should be inevitably transformed to be accepted by modern men. It becomes a showy event by highlighting the image of event and tourist goods. In contents, women taboo, women's inability to be Buddha, women relief (Wangsaeng) shown in the sense of Nunobasikanjoe in history is excluded as it does not fit modern men sense of value. Irrespective of gender, mental healing of modern men is packed.

By reproducing Nunobasikanjoe of Asicuraji, the light & darkness and tradition of village renaissance remains a form and the contents are transformed to the interest of modern men, implying the ceremony itself is born again. We have to think what tradition means to modern men in the age when senses of value is changed and what we should succeed.